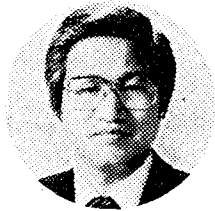


國際競爭力面에서 본

工業所有權과 産業政策

—技術革新·構造改編서 發展要素찾아야—



李 祥 羲

〈國會議員·辨理士〉

이 글은 지난 9월에 열린 韓·佛 國際工業所有權세미나에 參席하지 못한 讀者들을 위해 當時 發表된 標題의 글을 간추려 실린 것이다. (編輯者 註)

福祉社會 建設을 표방하고 수립된 제5차 5개년 經濟開發計劃은 最終年度인 1986년에 1人當 GNP가 2,170달러(81年 不變價), 輸出額은 530억달러에 달하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특히 과감한 開放政策으로 經濟의 「能率」을 提高하면서 持續的인 安定成長을 표방하고 있음이 과거와 구별되는 특징의 하나이다.

安定과 成長은 二律背反的인 構造的要素를 지니고 있다고도 하겠으나, 과거의 급격한 成長에 따른 「마이너스」를 最少로 줄이면서 持續的인 健全成長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기본정신이라고 말할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과연 어떻게 健全成長을 「持續化」시키느냐가 5차 5개년계획의 核心이라고 할 때 좀더 根本的인 문제의 흐름을 추적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失業에서 雇傭으로, 無賃金에서 低賃金으로 변천하는 과정은 분명 成長發展의 자연스러운 흐름

이지만 雇傭에서 能率로, 低賃金에서 高賃金으로 이행되는 進行與否가 결국 「持續的成長」을 결정하는 기본골격이 될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能率과 高賃金を 가능케 하는 길은 종국적으로 生産性向上에 귀착되며 그 生産性向上을 위해서는 技術革新과 人力開發이 필수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결국 우리의 國際競爭力도 「持續的成長」 위에 가능하다는 점을 前提로 할 때 5차 5개년계획의 目標도 技術革新을 통한 國際競爭力의 提高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5차5개년계획에 발맞추어 우리 企業의 80年代 經營目標도 技術蓄積, 應用開發, 製品의 高級化, 그리고 企業의 國際化로 産業革新을 指向하고 있다.

더우기 民間主導經濟體制로 轉換하는 過程에서 企業이 指向하는 經營目標은 바로 국가의 産業政策을 구현하는 前提가 된다.

지금까지는 사실 지나친 對外依存的 工業化를 産業政策의 주축으로 推進한 결과 상대적으로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誘發하여 輸出商品의 가격안동이 불가피했고 輸出市場을 면밀히 分析하지 않은 상태에서 重化學工業에의 集中投資는 施設과잉과 重複投資를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資本生産性이 극도로 저하되었다.

그동안 競爭力을 유지했던 輕工業도 效率의인 投資의 未備와 技術革新에 의한 製品高級化 및 差別化를 달성하지 못했고 實質所得의 저하로 발생한 社會的 저항과 勞使問題의 대두는 근로자와 企業家 共히 意慾의 장애요소가 되어 결국 價格競爭力조차 위험한 상태에 도달했다.

이같은 상황을 탈피하여 지속적인 成長을 이룩하는 길은 바로 企業의 經營目標를 包容하는 産業政策의 高次的展開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80年代 우리의 産業戰略은 動態的比較優位에 力點을 두고 先進工業國의 모델을 淸목적으로 답습하는 모방형태보다 우리의 特化方向을 正립하고 産業內部的 技術·人力등 動態的發展要素를 效果的으로 유도함으로써 産業技術을 革新하며 産業構造를 다양화하고 유연성있게 高度化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國際競爭力이라는 측면에서 더우기 民間主導로 技術革新을 世界産業社會의 脈絡으로 풀어가려 할때 우리에게 불가피하게 부딪치는 두터운 장벽은 바로 先進工業國의 特許網이다. 國際産業社會의 最前線에서 불꽃튀기는 攻防戰에 勝敗를 가름하는 것은 그것도 技術의 高度화가 크면 클수록 最終的으로 特許戰略이라는 엄연한 사실에 귀착된다.

따라서 이른바 「特許戰爭」을 效果的으로 수행할수 있는 産業戰略을 國家的으로 誘導하고 自律的으로 立案할수 있는 發生장치가 된다면 「持

續的成長」은 保障받을 것이라 斷言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더우기 「自律·開放·能率」이 經濟運用의 기본원칙으로 표방되어 있는 現狀에서는 우리의 工業所有權制度도 어쩔수 없이 國際化的 물결속에 制度의 國際化로 開放하게 될 때 外國人의 出願과 權利의 擴大는 必至의 사실이며 이런 상황속에서 國內企業의 研究開發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促進되고 강화된다면 얼마나 所望스러운 일인가?

이같은 所望이 5차5개년계획기간중에 達成될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한번 産業政策과 特許戰略을 國際競爭力이란 함수관계로 高次方程式을 正립하고 머리를 맞대어 相互協力하면서 正答을 導出해야할 때에 서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앞서 실시한 韓·佛工業所有權세미나는 참으로 意義깊은 기획였다고 생각된다.

原子力, 宇宙航空分野에 세계침단을 指向하면서 科學擔當 國務長官 밑에 機械工學技術方向設定諮問委員會를 두고 있는 프랑스는 또한 總理直屬으로 機械工業諮問官을 두고 관계부처간의 업무조정을 담당케하고 있는 등 科學技術政策面에서 남다른 모델을 正립해 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電子, 컴퓨터, 自動制御, 光電子등을 機械工學에 組合함으로써 工業化로 도약을 시도하는 프랑스의 特許制度를 이곳 서울에서 파악할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귀중한 계기로 삼고싶다.

프랑스와 유럽, 그리고 先進工業諸國으로 이어지는 國際産業戰線에서 産業政策의 필연적인 變數로써 다양한 特許戰略에 對處하면서 比較優位的 國際競爭力을 創出해 나아가야 하겠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